

북방식 고인돌 원류를 찾아서



세계 고인돌 분포도

사진 출처 : 동북아시아석묘연구소

고인돌의 최초 발생지, 코카서스 고인돌의 원형을 그대로 모방한 요동반도 개주, 해성의 고인돌

코카서스 지역으로써 흑해 해안을 따라 3천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크라스노다르(Krasnodar) 고인돌과 소치(Sochi) 고인돌 그리고 트빌리시(Tbilisi) 고인돌은 많이 알려져 있다. 코카서스의 3천기 고인돌 대부분이 요동반도 개주시(盖州市) 석봉산 고인돌 또는 해성시(海城市) 석목성 고인돌과 같이 정교한 사각기둥 형태를 하고 있다. 단제 신채호는 평양폐수고에서 개주시 조금 위에 요령성 해성시(海城市)를 왕검성 자리라고 본다. 개주시와 해성시에 있는 고인돌은 바위와 같은 큰 돌을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는 우수한 도구와 숙련된 석공을 보유한 무리의 집단에서나 가능하다.

3천 2백년 전에 단지와 민족이 이스라엘 소라 땅에서 동쪽 해돋는 곳을 목적지를 삼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알타이 산맥에 이르러 약 백여 년간 우거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생존할 수 있게 하는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동쪽 외곽 알타이 산맥의 산속에 청허(靑河)라는 강이 흐르는 싰다오하이(三道海子)에서 높이 15미터, 지름 100미터의 돌무더기의 제단을 쌓았다. 싰다오하이(三道海子)는 몽골 초원으로 향하는 통로이다. 단지와 민족은 내몽골 적봉시(赤峰市) 영성현(寧城縣)의 남산근(南山根)까지 진출하여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을 제작했다.



요동반도 개주시(盖州市) 석봉산 고인돌



해성시(海城市) 석목성 고인돌

코카서스 고인돌은 노아 홍수 이전의 문명이 노아 가족에 의해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코카서스 고인돌

아라랏산 북서쪽 흑해와 맞닿은 코카서스에 수많은 고인돌

코카서스 고인돌 형태의 특징은 칸테이너 박스처럼 생겼는데 좌우 받침돌뿐만 아니라 덮개돌 역시 절삭기로 정밀가공한 것처럼 네모반듯하게 다듬었다. 그리고 고인돌 전면과 후면에도 막음돌로 끼어 놓았는데, 특히 전면 막음돌에는 중앙에 혼구멍(spirit holes, Pothole)을 뚫어 햇빛이 스며들게 하였다. 기원전 2천년 경에 이러한 정교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놀랍다.

흑해 연안의 코카서스 지역에 고인돌을 최초로 축조하던 시기가 대홍수(BC 2450년) 발생시기와 비슷하다. 코카서스는 노아의 방주가 안착한 아라랏산에서 그리 멀지 않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아마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아벳 자손이 코카서스로 이주하여 살면서 최초의 고인돌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카서스 인종은 북방계(아벳족)와 남방계(셈족, 함족)로 구분한다. 대홍수 직후에는 아름다리나무를 구경할 수 없었던 환경이기에 나무로 조각하는 창작활동이 불가능했으며, 오히려 호숫가나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민둥산에 널려있는 바위를 깨뜨려 고인돌과 같은 석조(石造)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종족의 단합과 종교적인 의례의 하나로써 성취감을 갖는데 일조하였으리라 본다.

고조선 수도가 건립된 대동강 유역에는 고인돌 1만 5천여 기 밀집해

코카서스 고인돌이 탁자식 고인돌 형태로 유럽과 중동 일대로 전파됨

혼구멍(spirit holes, Pothole)이 있는 코카서스 고인돌은 흑해를 가로질러 서쪽 불가리아에도 전파되었지만 적은 수에 불과하고 소위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탁자식(卓子式) 고인돌'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탁자식 고인돌은 지중해 연안의 유럽 일대에 크게 퍼져 나갔고 더 나아가 서유럽의 프랑스와 아일랜드 그리고 북유럽 덴마크와 중앙유럽 독일과 폴란드와 헝가리 등지로 확산되었다.

또한 코카서스 고인돌은 남쪽으로 대동강 유역에도 전파되었는데, 특히 요르단에서 발견되는 고인돌 가운데 전면 막음돌 중앙에 뚫은 구멍(spirit holes,



요르단 고인돌

Pothole)이 코카서스 고인돌처럼 원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바산 지역에도 코카서스 고인돌의 영향을 받은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는데, 바산의 고인돌 중에 전면 막음돌을 직사각형으로 뚫어 지면과 맞닿게 했다. 이렇게 바산 지역을 포함한 골

란고원에 수천 기의 탁자식 고인돌이 산재해 있으며 골란고원의 감라(Gamla) 지역에만 700여 기의 탁자식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고인돌은 중간 청동기 시대(c. 2200-2000 BC)에 골란고원 일대를 떠돌며 생활하던 유목민들이 만든 무덤이었다. 이스라엘 전역에도 탁자식 고인돌이 산재하고 있다.

고조선 시대의 북방식 고인돌은 단지파 이동의 산물

만주 일대와 한반도 한강 이북에서 발견되는 북방식(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지역은 곧 고조선 세력범위와



이스라엘 단(壇, Dan) 성읍 근교 골란고원 고인돌 출처: <https://ferrelljenkins.blog/2017/03/12/a-question-about-dolmen/>

일치한다. 고조선 시대의 북방식 고인돌 축조연대는 기원전 1,100년 내지 기원전 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기원전 200년에 이른다. 기원전 1,100~1,000년경에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설립한 민족이 이스라엘의 소라 성읍에서 이동해온 단지파 민족인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강화 부근 탁자식(북방식) 고인돌

북단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여 단 성읍으로 개명하여 우거한 바 있다. 단 성읍의 근교 바산 지역에 한반도의 탁자식 고인돌과 똑같은 고인돌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아마도 단지파 사람들은 주변에 널려 있는 고인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약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단지파를 축복하기를, '단은 바

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라고 하였다. 이는 단지파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바산의 북서쪽에 있는 사자 성읍(라이스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모세의 예언대로 단지파 민족은 단 성읍과 인접한 골란고원의 바산 지역을 활동무대로 삼으며 노아시대(대홍수 이후)의 탁자식 고인돌을 발견하고 그대로 모방했다.

전세계에 약 7만 기의 고인돌이 있는데, 그 중 4만 기 정도의 고인돌이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고조선의 수도가 있었던 대동강 유역에는 1만 5천여 기의 고인돌이 밀집해 있으며 대부분 탁자식 고인돌이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10-7518-9981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오산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